

청소년 마약 사용이 늘고 있다 ①

*최근들어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등
청소년의 마약 사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흡입제들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여건과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청소년을 위한 성숙되고 안정된
사회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과학문명과 의학의 발달, 소득의 증가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수준이 높아지고 편리해짐에 따라 그 역기능으로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중 일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 가치관의 변화에 편승하여 마약류 사범이 점점 확산 일로에 있다. 마약류는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반이성적, 반사회적인 것이다.

최근 인격 형성 단계에 있는 사춘기 청소년과 학생의 마약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적발된 청소년 마약사범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 후반기인 18~19세와 20대 초반기인 20~24세가 94.9%로써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청소년의 환각 물질 흡입은 16~19세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5세 이하도 8.6%나 되어, 10대 청소년의 환각 물질 흡입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알 수 있다. 특히 종래 17~18세 중심이던 환각물질 흡입 사범이 1992년부터는 16~17세가 더 높은 점유율을 보여 점차 연령이 낮아지

는 추세에 있다.

이처럼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환각물질을 남용하는 원인은 시중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다는 외부적 요인과 호기심, 학업 성적, 친구관계, 장래문제의 불안감 등 청소년층에서 흔히 나타나는 내부적 불안요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1.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 원인

약물 남용의 동기요인은 복잡하고 다양하다. 습관적으로 청소년들이 약물을 남용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며 약물의 선택과 약물에 대한 심리적, 생리적 반응에 있어서도 각각 다른 차이점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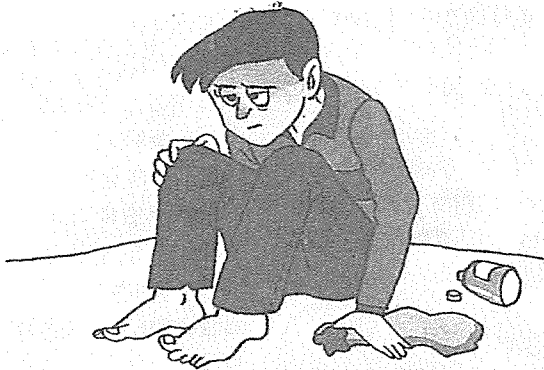
가. 역사적·관념론적 측면

고대로부터 인간은 약물로서 쾌락과 신비스러운 경험을 해왔다. 이러한 쾌락 추구나 신비주의에의 양면성이 잘 드러난 예는

주신(酒神) 축제 때 술에 취해 떠들게 할 목적으로 사용된 반면, 신탁과 같은 종교의 식에서도 사용되었다. 인도에서는 부랑자가 약물 남용을 현실도피 및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금욕주의자들은 신비스런 계시를 받기 위해 이용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흑인 빈민가 문제, 흑백 인종차별 문제, 대학가의 소요, 정치 지도자의 암살, 히피운동, 반전운동 등 여러가지 기존 사회 체제 및 가치관에 대한 도전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풍조를 낳게 되어 약물남용 문화를 탄생시키게 했다는 관점이다.

나. 사회적 측면

첫째, 약물남용 그 자체가 벌써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부터 벗어나는 현상으로, 사회구조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의 사회에서 정상적 방법으로는 야망을 성취할 수 없을 때 비정상적인 방법인 약물을 추구하게 된다는 사회부조화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약물 남용은,
사회구조의 잘못으로 인해
현재의 사회에서
정상적 방법으로는
야망을 성취할 수 없을 때
비정상적인 해결방법의 하나로
추구되고 있다.

둘째, 급격한 전통문화의 변화와 가치관의 갈등으로 소외현상이 생기며, 그 결과 사회적으로 도덕적 무질서 현상이 온다. 소외현상은 빈곤, 노령화, 억압, 기회부족 등이 있을 때에 흔히 잘 일어나며 현대의 인간은 그 자신에게도 낯설어지게 되고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 친밀한 인간관계 상실 등은 문화적 결핍현상 및 사회로부터의 고립화를 가져오며, 이러한 것으로부터 약물 추구 현상이 올 수 있다.

셋째, 주위에 약물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그가 좋아하는 약물을 주위의 친구들이 권할 때, 약물 남용에 쉽게 빠진다. 그들 사이에서는 약물에 큰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아 그렇게 믿고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약물을 통하여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약물남용하는 또래 집단에서 보다 확실한 소속감을 얻게 되어 주변의 반대 짚은 무시할 수 있게 되고 이들 친구 집단 간에 약물은 중

요한 촉매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다. 심리학적 측면

첫째, 심리적 의존이란 어쩔 수 없는 심리적인 인자로 인해 약물에 의존하여 반복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심리적으로 약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환경적 요소(약물구입의 용이, 문화적 가치관·관념론적 갈등)들이 약물에 대하여 허용적일 때 약물에 더 쉽게 가까워지고, 심리적으로 긴장·불안·우울·권태 등이 있을 때 쉽게 빠지게 되며 특히 약물남용에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심리상태는 좌절이다.

약물은 좌절로부터 일어난 불유쾌한 감정을 해소해 주며, 이처럼 긴장을 완화시켜 주는 사실이 더욱 약물에 의존적인 행동을 하도록 조건화 학습을 시키게 된다. 따라서 쾌락을 추구하면서도 새로운 세계에 대한 경험 및 성찰을 한다고 나름대로 자기합리



약물 남용은
또래 집단에서
보다 확실한 소속감을
얻도록 해주며,
주변의 반대 짚은
무시할 수 있게 되고
이들 친구집단간에서
약물은 중요한
촉매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의 환각물질 흡입은 16~19세가 7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15세 이하도 8.6%나 되어
10대 청소년의 환각 물질 흡입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화를 하게 된다.

둘째, 발달이론 및 정신 역동적 이론으로 청소년기 약물 남용에 쉽게 접근되는 것은 특별한 성격이나 증후군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성장과정 중에 일어나기 쉬운 일반적 특징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청소년들이 보다 어려운 발달 과업을 성취하여 개인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된 주체성 확립과 급변하는 사회에서의 많은 역할을 감당해 낼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회가 급변할수록 그들은 위기감을 느끼는데,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신의 소원이 너무 쉽게 충족된 경우에, 이러한 위기감은 자기애적인 전지전능의 환상 속으로 빨려들기 쉽다. 자기에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감을 조성하여 문제를 마술적으로 해결하려는 어린시절의 환상적인 만족으로 퇴행, 도피 등 파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럴 때 약물은 도피의 한 수단이다. 약물은 이를

잘 해결해 주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 주고 환경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 주기 때문에 남용하게 된다.

청소년기의 소외감은 정신발달과정으로 볼 때, 성장과 성숙에서 심리적 정지상태로 볼 수 있으며, 어린시절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곤란하거나 좌절했을 때 대처할 준비가 되지 않아 생기게 된다.

셋째, 정신분석학적 이론으로는 약물을 탐닉하는 행위를 리비도의 고착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성(性)의 발달에 있어서 생식기 전단계, 구순기 또는 그 이전 단계로의 퇴행이 원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영유아기의 부모 자녀관계 중 특히 모친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은 성장하여 환경에서 오는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 (계속) 

<자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